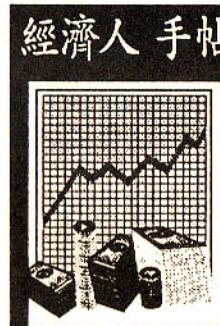


(14) 1992년 10월 16일,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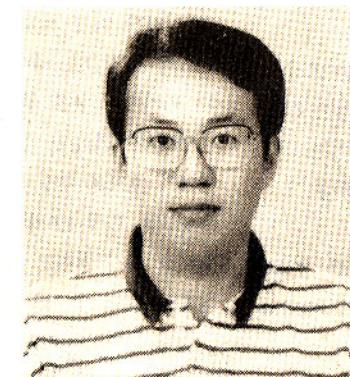
Vancouver Korean Press



##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 (Ⅲ) 카나다경제의 특징과 그에 따른 한국인의 진출전략

김영수 (경제학박사)



#### 첫번째 환영객: 영어문제

그래도 상하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 어전회의 같은 곳에서는, 아래의 장면이 드문 드문 눈에 띈다.

(장면1)

'자! 다들 자유롭게 이야기 해보지!'라고 웃사람이 토론의 운을 떼면,

'저번에 말씀하신 그것이 절대로 옳다는 것을 저희는 맘 그하옵기도 지금에서나 깨닫고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를 저희 미물과도 같은 중생이 모시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식으로 토론(?)이 조용하게 끝난다.

그 웃분이 '내가 저번에 무어라고 했지?'라고 물으면, 큰 소리로 '잊었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이다.

상하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된 곳은 그렇다치고, 상하관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곳은 이야기 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국회같은 곳에서는討論이라는 신성한 의식은 시

작하자 마자 10분이내로 주먹 다짐 멱살잡기 의자던지기의 吐瀉狂亂의 형태로 轉移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의사불통의 전통이 우리 동양에, 아니 우리나라에 아주 아주 심하게 뿌리내려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의 토론 응변문화, 로마의 의사진행, 그리고, 기독교의 아폴로제틱스... 이런 能辯의 문화가 수천년 뿌리를 내려온 그런 동네이다. 이런 분위기하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비교적 상당히 정확하게 밝히고 있고, 똑 같은 것을 상대에게도 요구한다. 심지어는 시내의 거지들도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Would you spare me a

change, please?"라고 당당하게 또박또박 자기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다. 앵벌이라고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구걸 수단은 멀쩡한 아이들을 병신을 만들어 놓고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게 훈련을 시켜 손님을 보지 못하게 한뒤, "한푼 줍쉐---"하고 목청을 구슬프게 뺏는 것인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것이다. 미안해하거나 쑥스럽거나 체면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것은 여기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밝히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재판을 걸고... 여기는 그렇게 사는 동네가 아닌가 싶다. 여기서는 <불변=품>이라는 等式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불변=저능>으로 통하는 것 같다. <불변=저능>이라는 등식이 통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응큼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陰謀家'라고나 할까? 좌우지간, 여기서는 말을 잘 못하면 살기가 아주 고롭게 되어있는 그런 동네인 것이다.

바로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여기 오시게 되면, 집사는 것, 차사는 것, 사업체 찾

는것... 이 모든 것 보다도 급히 해야될 일이 더듬아닌 영어를 배우는 일이다. 마중나오신 분들과 같이 공항에서 나와 첫 숙소를 향해 가는 길에 차태워 주시는 이 고마우신 분들은 보통 약 20-30분간 무허가 '카나다 생활 오리엔테이션'을 하여 주시고, 곧장,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의 순서를 밟게 되는 것이 定石인데. 좌우지간 도 저히 피할 수 없는 이 '도착자를 위한 국민의례'가 끝나는 즉시 도착자 여러분이 하여야 일은, '여기 어데가면 영어 잘 가르켜 줘요?'하는 바로 이 질문이다. '자나깨나 영어!' 아니, '잉글리쉬! 데이엔드 나이트!' 이것이 당분간 이민 생활의 첫 모토가 되어야한다.

이쯤되면, 필자가 좋아하는 풍자이야기를 또 하여야하는데, 여기에는 공짜이거나 공짜에 준하는 싼가격으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장소가 많다. 서양 교회마다 찾아보면, 외국인 영어 공짜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많다. 전가족을 커뮤니티 센터, 교회, 정부기관, 야간학교... 이런 곳의 영어 가르쳐주는 공짜프로그램에 서너개씩 동시에 등록을 하고, 처음 얼마간은 영어를 죽자하고 배워야한다. "잉글리쉬! 유 디아 미다이 투 세임다이다 쌍!" 하고 말이다. 우리, 여기서 영어 배워서, 양놈들 앞에서 평생거리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민 오지 않았겠는가? 힘들고 더럽고 서럽고 아니꼽고 치사해도, 별별 수를 다 써서 이 놈들 말을 배워야한다. 한국서 외교관 생활을 하고, 미국서 박사학위

를 하고, 카나다에서 교수일을 한 김 모라는 사람도 영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 나한테 영어가 어렵고 힘든 것은 당연하다. 처음에 잘 안된다고 기죽거나 겁먹거나 주눅들지 말고 이 영어라는 양반부터 작살을 낼 생각을 해야 이곳 카나다 생활이 쉬워진다. 처음에 이것을 해결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기죽고 노상 겁먹고 일생 주눅들게 되고, 급기야는 자손萬代까지 그렇게 된다.(너무 겁을 주었나?)

그런데, 필자가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만 몰래 가르쳐 드리는 영어 잘하는 비결이 몇가지 있는데, 다름아닌 아래의 서너 가지 방법이다.

첫째로, 우리는 이제 기초부터 다시 배울려면 이미 늦었다. 따라서, 기초부터 다시 배울려면 절대로 안되게 되어있다. 하바드에서 이중언어를 전공으로 연구하신 분의 이야기도 필자와 전혀 동일하다. 따라서, 이민을 오신 분들은 영어를 기초부터 다시 배울려야 한다. 우리처럼 영어에 관한 문법공부를 십수년을 해낸 사람들은, 처음에 힘들어도, 곧장 증급내지는 고급 코스에 부딪쳐서 그것을 이겨내야지, 지금 "디스이즈아 보이" "하우 두 유 두"를 다시 시작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필자는 모든 語學에 초급과정이 아주 없어야 한다고까지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인데, 일례로, 아래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필자 김영수/ Cranewood Corp 대표 682 8686-